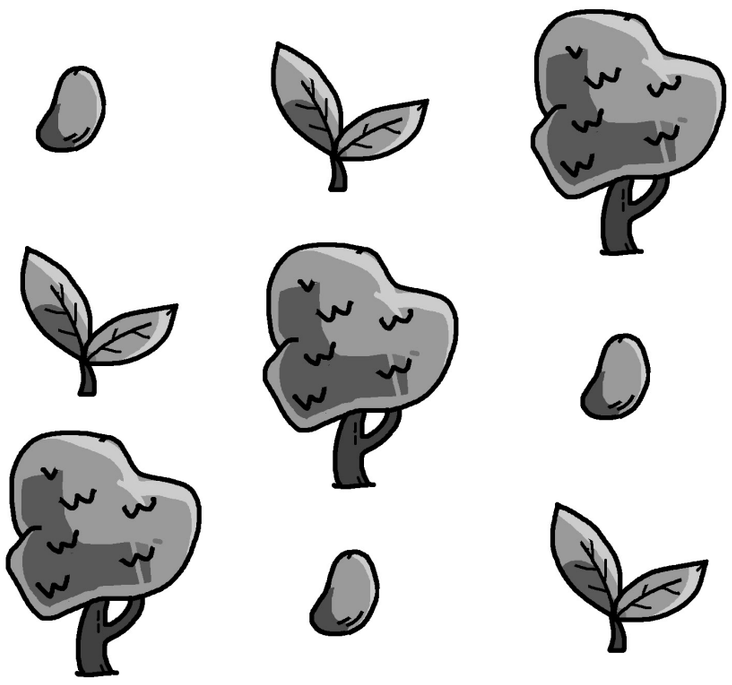
이왕 죽을 거라면 아예 죽든지 말든지 오로지 다 그냥 버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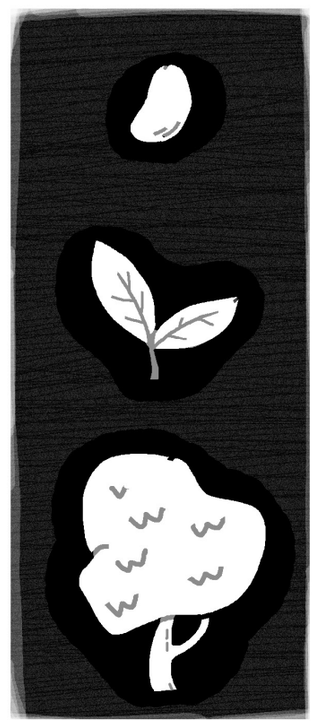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허공 에너지 끌어 쓰려면

질문 생활 속의 병고, 애고를 재료 삼아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주인공 자리는 전력, 자력, 광력, 통신력 다 갖추어진 에너지 창고이니 끌어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허공 에너지를 맘대로 끌어 쓸 수 있을까요?

답변 내가 예전에 산으로 다닐때 말이에요,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를 그냥 한발 디디라는 거예요. 그냥 평지처럼 디뎌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딛겠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그냥 그거 죽는 거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는 건데 이렇게 죽으면 어떠랴.' 하곤 그냥 한 다리를 떼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그냥 한 다리 떼어 놓는 데로 떨어지면 그 돌에 부딪쳐서 그냥 죽을 텐데, 한 다릴 떼어 놓을 때 한 다리가, 이 발이 착 붙어요. 붙어서 두 번 떼는데 공중으로 그냥 떨어져요. 그런데 이만치 가서 떨어지니까, 어디 가 떨어졌느냐 하면 예전에 저, 나무 베어서 묶어서 쌓아 놓은 자리, 그 자리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에 무척 추웠거든요, 또.

아, 내려가서 보니까, 눈 쓱쓱 비비고 보니까 이런 나무 둥구리를 묶어서 이렇게 쌓아 놓은 거에요. 둥구리 하나를 싹 빼니까 거기 구녁이 뚫리잖아요. 아, 그래서 뒤로부터 들어갔죠. 뒤로부터 들어가고 앞에 그걸 이렇게 기대서 잡아당겨 놓으니까 얼마나 뜨듯하고 좋았던지 말이에요. 그때요,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떼어 놓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좋은 방도 못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떼어 놓고는 떨어졌으면 돌 이렇게 나온 그 저기에 이렇게 부딪쳐서 그냥 죽었을 거에요. 근데 한 발 떼어 놓으니까 그냥 딱 붙어요, 땅처럼. 그러고 두 발 이렇게 떼어 놓으니까 그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 나무 둥구리에 떨어진 거죠.

이 우리가 사는 게, 이것이 영화 하면서 막을 내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탤런트들이 영화 하고서 딱 물러나면은 그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다 하죠. 빠져 죽는 시늉까지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우리 삶도 영화인데 이렇게 살다 죽게 되면 죽는 거를 아주 원통하게 생각해서, 아프면 아픈 거를 원통하게 생각해서 그냥 착을 떼지 못하니까, 식구들이 떼질 못하니까 내던질 수가 없거든요. 내던지면 살 텐데 내던지질 못해요.

한 철 사는 거, 여러분들이 이래도 한 철 저래도 한 철 살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한 번은. 그런데 이왕 죽을 거라면 아예 죽든 말든 다 그냥 오로지 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버리고 버리지 않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냥 공했어요. 그냥 찰나찰나 우리가 여기 발 디뎌 놓고 떼어 놓는 거와 같아요. 하나 떼면 하나 없어지고 하나 떼면 하나 없어지고, 이거 보면 이거 없어지고 저거 보면 저거 없어지고, 이 사람 만나면 이거 없어지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없어지고, 이거 먹으면 저거 없어지고 이렇게 모두가 되없어지는데 그거 없어지는 거를 왜 붙들고 늘어지느냐고요. 하루살이로 살지.

그렇듯이 이 세상이 다 공한 건데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공도 버렸을 때, 공한 것도 버렸을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허공에서도 에너지를 끌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가 귀하다 이럴 땐 전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만들고, 용도에 따라서 뭐든지 그대로 그냥 보고 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오신통을 다 알고 자기를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 왜냐. 목마른 사람이 죽게 됐는데 물이 여기 있는 줄만 알고 갖다 먹일 줄을 모른다면 그건 허탕이지 그게 무슨 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고 후년에는 어떻고, 네 팔자가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이런 거를 다 안다 하더라도 그러지 못한다면 허탕이죠.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목마른 사람 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그거는 도가 아니니 도니 하는 그 난설은 다 필요 없고, 그것이 실천하는 바로 부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착을 놓는 것과 관하는 것

질문 착을 놓는 거와 관한다 하는 것이 같은 것인지요. 놓는다 놓는다 하면서도 착이 잘 놓아지지 않아서 답답해서 제가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답변 관한다 이런 거는 놓으면서 믿음으로써 들어가는 겁니다. 놓는 거는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고요, 한군데다가 일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재료를 맷돌에 넣어서 갈려서 나와야 먹을 게 아닙니까? 그와 같이 관한다는 것은 자동적인 맷돌에 물건을 넣고 갈려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일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법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실 때에 걸어오셨죠? 한 발짝 한 발짝, 예? 걸어오실 때에 그 발자취를 걸머쥐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착이 됩니까? 이 세상살이는 만사가 다 찰나찰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돼서 요건 요렇다 하고 집어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칙은요, 착도 없고 관도 없어요. 관도 놓고 착도 놓고 모든 것을 여여한 그대로…. 그것은 바로 물리가 터져야 됩니다. 이 세상살이가 그냥 본래 놓고 가는데 또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체가 돌아가는 자체, 공(空)해서 돌아가는 이치에서 그것을 주시하고 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관하고 돌아가니까 그것이 참선이 되는 거죠. 행선이나 좌선이나 입선이나 와선이 전부 한데 합쳐져서 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참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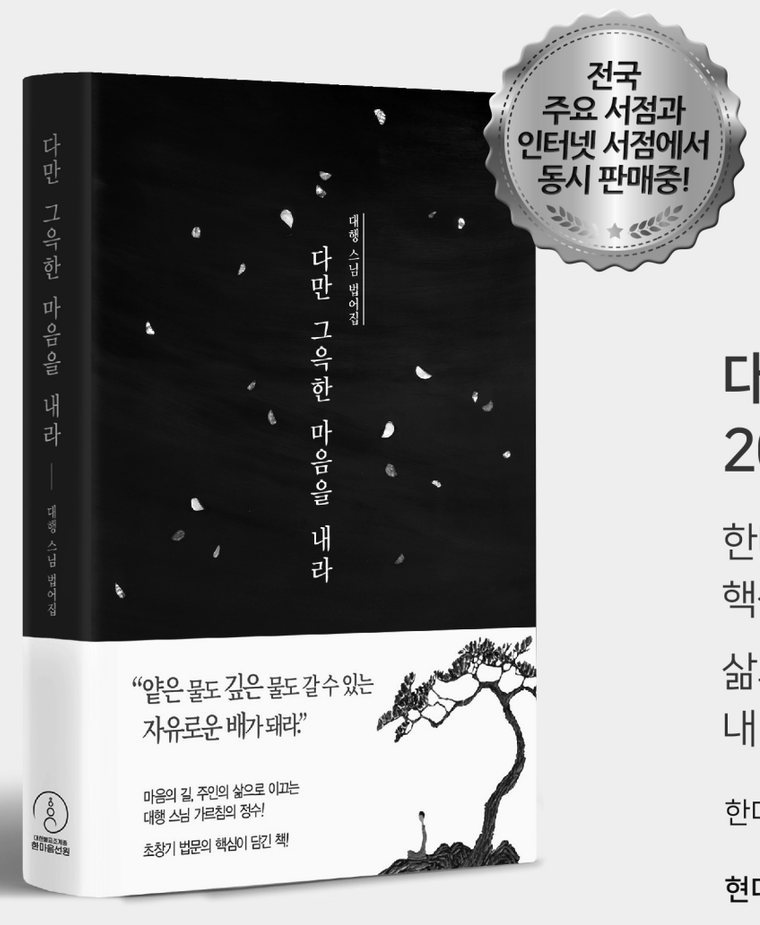
그런데 왜 착이 거기 붙습니까? 아니, 답답한 것마저도 거기 붙지 않습니다. "공했다는 말 자체도 공했으니…."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건데, 공했다는 자체, 공해서 없다는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없다는 자체도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착이 어째서 들어갑니까, 거기?

그래서 '앞도 뒤도 없다' 이러는데 이 뜻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싹이 돼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그 씨는 없어지죠. 씨는 싹이 돼 버렸죠, 벌써. 그 씨가 또 되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연방 과거는 없다는 얘깁니다. 과거는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은 공(空)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없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을 것이 없어요. 마음에 붙을 것이 있습니까? 모두 여러분이 지어 가지고 창살을 만들어 놓고 나오지 못해 애를 쓰고 그러는 거지, 그 마음에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 나오면서 관습에 의해서, 이사를 가면 뭐 동쪽으로 가야 되느니 서쪽으로 가야 되느니, 손이 달렸느니 발이 달렸느니, 하하, 또 삼재가 들었느니 온통 자기네들끼리 그 관습을 그냥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매달려 가지고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무것도 붙을 게 없는데…. 다들 안 그렇습니까? 참 이상스러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왜 그렇게 그 관습을 따라야 하는지. 마음에는 붙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떼지 못하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음을 걸어오거나 말을 하거나, 만나거나 먹거나 모든 것을 하면서 가정에서 살아도 그게 어디 붙을 게 있

☞ A18면으로 계속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